

7번째 도전... 목포·신안 '성공 통합' 분위기 확산

통합추진위원회 재정비 위원·현장 홍보위원 확대 도농상생교류사업 보고회 시·군 공동 연구역 발주

목포시가 일곱번째 도전하는 목포시와 신안군의 성공적인 통합을 위한 분위기 확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목포시는 오는 10일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에서 '2023 목포신안통합추진위원회 출범식'을 갖는다고 8일 밝혔다.

박홍률 목포시장과 문차복 시의회 의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출범식에서는 신입위원 위촉장 전달과 경과보고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기존 25명의 통추위 위원을 50명으로 확대하고 현장 홍보위원도 신안군 14개 읍면에 각 2명씩 28명을 임명하는 등 조직을 재정비할 계획이다.

지난 2021년 발족한 목포신안통합추진위원회는 그동안 시군 통합을 위한 토론회 등을 통해 통합 분위기를 조성해 왔다.

목포시와 인접 지자체의 통합은 지난

1994년부터 목포와 무안을 시작으로 6차례 시도됐으나 일방적 추진에 대한 반감과 공감대 부족 등으로 무산됐다.

목포시는 실패했던 과거 사례를 교훈 삼아 관 주도 통합방식에서 탈피해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민간주도 통합에 주력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신안군과 도농상생을 위한 자매결연을 맺고 김장김치 담금기와 농수산물 사주기 운동 등 민간교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현재 목포시 23개 동 중 20개 동이 신안군 14개 읍면 중 12개 읍면과 자매결연을 맺었다. 신안군의 일부 읍면은 목포시 2개 동과 자매결연을 맺고 교류활동을 펼치고 있다.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 및 국립해양수산물박물관 유지 지지 서명, 어울이카데미 등 통합을 위한 상생지원 활동도 추진했다.

목포시는 오는 22일 그동안 추진해 온 신안군과 도농상생 교류사업에 대한 보고회를 가질 예정이다. 도농자매결연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계획 등을 논의한다.



목포시가 신안군과의 성공 통합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목포시 부흥동과 신안군 흑산면 간 상생교류를 위한 자매결연 협약식. 목포시 제공

목포시와 신안군의 시군통합 효과와 문제점 등을 점검하는 공동 연구용역도 추진된다.

목포시와 신안군이 5000만원씩 1억원이 투입되는 연구용역은 입찰공고와 제안서 평가 등 행정절차를 거쳐 오는 5월 착수한다.

연구용역에서는 통합에 따른 부문·권역별 발전방안과 통합효과 및 문제점, 국내·외 통합사례 분석 등을 실시한다.

주민 의견수렴은 물론 법령을 보완하는 논리를 개발해 통합의 행정·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목포시 관계자는 "신안군 읍면과 목포시 행정동간 자매결연은 아직 성사되지 못한 하의·도초면 등 2곳과 이달 중 마무리 예정"이라며 "향후 농촌일손돕기와 대표 축제 상호초청 방문 등 민간교류 중심의 활동을 통해 통합 분위기를 조성해 가겠다"고 말했다. 목포=정기찬 기자

자연사박물관·어린이과학관 초등생 대상 프로그램 진행



목포자연사박물관과 목포어린이바다과학관이 3월~7월 초등생을 대상으로 매주 토, 일요일 2023년 상반기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

8일 목포시 등에 따르면 목포자연사박물관은 전문과학교사가 강의를 맡는 '자연사교실'을 교과과정과 소장품 연계 체험 중심으로 운영한다. 올해는 학년별 정규과정은 물, 전학년을 대상으로 단기과정도 마련된다. 정규과정은 학년별로 4개 과정으로 매주 토요일 총 32차시가 진행된다.

단기과정은 초등 전학년을 대상으로 매주 일요일 14차시가 운영된다. 수업은 18일~7월8일까지다.

참가를 희망하는 경우 오는 15일까지 목포자연사박물관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목포어린이바다과학관은 토요일 해양과학교실도 맞춤형 교육으로 진행된다.

교육은 해양과학 일반과정(신비한 바다 속 생물이야기 등)과 현장체험(삼학도 수로 생태체험, 요트 승선체험) 2개 과정으로 총 13차시로 이뤄진다.

접수는 22일까지 목포어린이바다과학관 누리집을 통해 선착순 20명, 수업은 25일부터 6월 24일까지다.

박물관 관계자는 "학생들이 체험교육을 경험함으로써 창의성을 발휘하는 등 박물관의 활동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목포=정기찬 기자



목포제일정보중고등학교는 지난 6일 부설평생교육원 문해교육 프로그램 초등학습자 232명에 대한 입학식을 가졌다. 이번 초등문해과정 최고령자는 한금석(무안군 삼향읍·82)씨로 배움의 한을 풀게 됐다. 목포제일정보고 제공

목포제일정보중고 평생교육원 초등학습자 입학식 "배움의 한 풀었어요"

232명...한금석씨 82세 최고령

'만학도의 요령'인 목포제일정보중고등학교는 부설 평생교육원 문해교육프로그램 초등학습자 입학식을 가졌다고 8일 밝혔다.

신입생은 초등1단계 강안읍 외 44명,

초등2단계 서야문 외 41명, 초등3단계 장연읍 외 85명 총 232명이다.

초등 문해 과정 최고령자는 한금석(무안군 삼향읍·82)씨이다.

생애 처음 학교에 발을 들여놓은 초등1단계 신입생 박순희(해남군 산이면·68)씨는 가난한 집안 사정으로 학교를

다닐 수 없었다. 남편과 사별한 후 해남에서 농사를 지으며 생활하던 중 지난해 TV(인간극장)에서 80대 노부부가 영암과 해남시장에서 생선장사 하며 공부하는 모습을 봤다.

막내딸에 전화해 "엄마도 학교가고 싶다"고 했더니 목포제일정보중고등학교

를 알아봐줬고 마침내 초등 1단계 입학할 수 있었다.

운영총재단법인 향토상임이사는 "우리가 목포의 눈물 가사를 잊지 않은 데는 수백번 반복해 불렀기 때문이다"며 "공부도 유행가 부르듯이 반복하면 잘 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목포=정기찬 기자

'1000원의 아침' 목포대, 월~금요일 프리미엄 조식 레스토랑 운영

목포대학교가 재학생과 교직원 등에게 매일 아침 단돈 1000원에 뷔페식사를 제공해 눈길을 끌고 있다.

목포대학교는 지난 2일부터 매일 아침 뷔페식 메뉴를 제공하는 '프리미엄 조식 레스토랑(천원의 아침)' 운영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집밥과 같은 아침 식사 제공을 통해 건강을 책임지고 식비 부담도 줄이자는 취지에서 추

진됐다.

조식서비스를 이용하는 학생들이 지불하는 가격은 1000원이다. 메뉴는 신선한 샐러드와 계절과일, 토스트, 소시지, 누룽지, 와플과 빵, 시리얼, 커피 등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은 식단 위주로 구성했다.

조식 이용시간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통학버스가 캠퍼스에 도착하는 오전 8시 20~9시30분까지다.



대학 측은 학생회관을 리모델링하고 각종 비품·식기를 교체해 고급 레스토랑

수준의 공간으로 단장했다.

조식서비스는 목포대 학생뿐 아니라 교직원, 인근지역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며, 중간·기말고사 기간에는 컵밥, 샌드위치 등 간편식도 제공할 예정이다.

송하철 목포대학교 총장은 "이번 시행되는 조식서비스를 대학 대표 복지 브랜드화 해 학생들의 생활을 세심히 챙기는 대학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목포=정기찬 기자

위험예보제 '관심' 단계 발령 목포해경, 7월말까지

목포해양경찰서는 안개로 인한 연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7월31일까지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고 8일 밝혔다.

안전사고 위험예보제는 연안사고 예방법에 따라 특정시기에 기상악화나 자연재난 등으로 안전사고가 지속·반복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하는 경우 관심, 주의보, 경보 단계로 나눠 국민에 알려 사고를 예방하는 제도다.

3월~7월 짙은 안개로 인해 방파제, 선착장 등 추락·미끄럼 안전사고 가능성이 높고 밀물시간을 인지하지 못해 갯바위나 갯바위에 고립되는 사고가 자주 발생한다. 목포해경 관내에서 지난해 농무기 연안사고 위험예보제 발령시기에 연안에서의 추락·고립 등 안전사고는 12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경은 위험예보 기간 중 항포구, 갯바위 등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순찰을 강화하고 파출소 전광판 및 현수막, 방송장치 등을 이용해 안전계도와 함께 해양안전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농무기에 특히 안개 등 기상정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스스로 안전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목포=정기찬 기자